

전 세계 아이들 '꿈의 축제' 시작됐다

BTS 새 투어 시리즈의 포문 2년 만에 대형 스타디움 공연 공연 리허설 과정도 모두 공개 현장감 살린 역대급 LED 화제



'아이들의 축제'가 시작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팬덤 '아미'를 거느린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24일 1년 만에 온라인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를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콘서트는 방탄소년단이 새 투어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첫 무대이자 지난해 10월 'BTS 맵 오브 더 솔 원'(BTS MAP OF THE SOUL ON:WE) 이후 1년 만에 선보이는 공연이다. 특히 2019년 10월 이후 2년 만에 대형 스타디움에서 펼친 무대라는 점에서 전 세계 시선이 쏠렸다.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펼친 공연을 온라인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생중계했다.

뒤이어 이들은 다음 달 27~28일과 12월1~2일, 총 4회에 걸쳐 미국 LA 소파 이 스타디움에서 오프라인 공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LA'를 연다.

●기쁨의 축제 '어디서든 함께 춤을'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스트리밍 공연을 시작하기 전 일종의 리허설인 '사운드 체크'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공연 준비 과정에 관객도 함께 참여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팬들이 물리는 것을 우려한 이들은 공연 장소 등을 철저히



그룹 방탄소년단이 24일 오후 6시30분 온라인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를 펼쳤다.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무대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이들은 독특한 콘셉트와 강한 개성으로 공연을 꾸었다. 사진은 콘서트 티저 이미지. 뉴스

감춰왔다. 하지만 장소와 곡을 비롯한 분위기 등이 전일 리허설 과정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팬들은 "스포일러"라며 우려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이마저도 "축제"로 받아들이며 즐겼다.

'퍼미션 투 댄스'라는 공연 제목이 말해주듯, 방탄소년단은 이번 무대에서 팬들과 호흡이 가장 중점을 뒀다.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서로의 합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대규모 공연장에 어울리는 무대와 곡들로 가득 채웠다.

콘서트의 콘셉트는 "기쁨의 축제"였다. 공연 제목과 같은 노래인 '퍼미션 투

댄스'의 가사처럼 "어디에 있던 누구나 함께 춤추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메시지에 따라 희망과 에너지가 넘쳐났다. 곡마다 독특한 콘셉트와 색깔이 묻어나는 무대는 방탄소년단의 전매특허인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를 이뤘다.

●'비주얼 이펙트 뷰' 현장감 !!

여기에 무대장치도 "역대급"으로 준비했다. 팬들이 조금이라도 현장감을 느끼게 하려는 방탄소년단의 마음이기도 하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LED 화면이 이를

말해준다. 실제 공연장 LED 화면 속 효과를 온라인 전송망을 통해서도 그대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 '비주얼 이펙트 뷰'(Visual Effect View·VEV)를 도입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사상 최대 크기의 LED로, 그만큼 이들이 무대장치에 각별히 신경 썼음을 보여준다.

팬들은 이를 통해 가사 그래픽과 중계 효과 등이 결합한 화면을 보고 즐겼다. 또 4K/HD의 선명한 고화질을 비롯해 팬들이 직접 6개의 화면 가운데 보고 싶은 것을 실시간으로 골라 감상할 수 있는 '멀티뷰' 등도 선보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영화계 거목 이태원 대표 별세

태흥영화사 설립 '서편제' '취화선' 등 제작 작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입원치료 받아



이태원 대표

'서편제' '기쁜 우리 젊은 날' 등 적지 않은 한국영화 대표작을 제작 해온 태흥영화사 이태원 대표가 24일 타계했다. 향년 83세.

이태원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은 이날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다.

1938년 평양 태생인 이태원 대표는 현재 한국영화의 기반을 닦은 '거인'이다. 1959년 한 무역업자의 권유로 우연히 첫 영화 '유정천리'를 제작한 그는 1960년대 건설사를 운영하다 1974년 경기도 의정부의 극장을 인수, 경기·강원 지역 배급으로 본격적인 영화 사업에 나섰다. 1983년 태흥영화사의 전신인 태창영화사를 인수한 뒤 이장호 감독의 '무릎과 무릎사이'·'어우동' 등을 흥행 시켰다. 1988년 '위험한 정사'로 한국시장 진출에 나선 할리우드 직배사에 맞서기도 한 그는 한국영화 대표적 제작자로 자리를 지켰다.

'가장' 임권택 감독·정일성 촬영감독과 1989년 '아제 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강수연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이후 함께해온 그는 2000년 '춘향전'으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 밟으며 한국영화를 다시 썼다. 2002년 '취화선'으로 임 감독에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안겨주기도 했다. 모두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쾌거로 남아 있다. 임 감독의 '장남', '장군의 아들', '서편제' '축제' 등과 배창호 감독의 '개그맨', 장선우 감독의 '경마장 가는 길'과 '화엄경' 등도 대표작으로 남았다.

발인은 26일 오전 10시이며 장지는 경기 분당메모리얼파크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3

'스우파' 주역들 내달 20일부터 콘서트

엠넷의 댄스경연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주역들이 무대에 다시 선다. CJ ENM은 11월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창원,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온 더 스테이지'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방송에 출연한 YGX, 라치카, 윈트, 웨이비, 코카N버터, 프라우드먼, 홀리뱅, 후 등 8개팀이 모두 참여한다. 이들은 방송으로 선보인 춤과 더불어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가수 박군 소속사 '성추행 음해에 법적 대응'



가수 박군

가수 박군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즉각 부인했다. 24일 박군의 소속사 토탈셋은 "최근 일어난 각종 의혹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소속사가 소속 여가수를 부추겨 음해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2일 밤 온라인상에서는 "가수 P로부터 성추행과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퍼졌다. '특수부대 출신 가수' '건실한 청년 이미지'로 묘사된 'P'가 박군이라는 추측이 더해져 파장이 커졌다.

세븐틴, 日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 1위



그룹 세븐틴

그들 세븐틴이 일본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 정상에 올랐다. 세븐틴은 22일 발표한 미니9집 '아타카'의 판매량 10만4667장으로 23일 일본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했다. 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16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타이틀곡 '락 위드 유' 뮤직비디오는 24일 오후 현재 유튜브 1540만뷰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 1위를 지키고 있다.

'위드 코로나'...연예계도 빗장 풀다

11월 BTS 송민호 오프라인 공연 방송가선 방청객 모집에도 나서 극장가, 할리우드 대작 효과 기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하며 연예계도 발걸음을 서서히 떼고 있다. 23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지면서 다채로운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그려왔듯,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콘텐츠를 공유하려는 기대 가득한 움직임이다.

●11월부터 오프라인 공연 활발

케이팝의 확산 속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요계는 아쉬움을 털

어내듯 11월부터 다양한 오프라인 공연의 막을 올린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미국 LA 공연에 이어 그룹 위너의 송민호·강승윤, 적재, 힙합그룹 에픽하이 등도 12월까지 공연장에 나선다. 2014년 이후 최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할 가요계의 기대도 커진다. 올해 1~9월 음반 판매량은 약 4300만장(한국음악콘텐츠협회)으로, 방탄소년단, 엑소 등 다양한 가수들이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6000만장 판매고의 전망을 밝힌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공연의 '정상화'로 가요계는 모처럼 활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프로그램 방청객도 조금씩'

방송 제작현장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출연자와 스태프 등 제작현장의 반복 진단검사 등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온 덕분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속 극장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마동석 주연 '이터널스'. 사진제공 | 월드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tvN '어사와 조이', MBC '지금부터 쇼타임!' 등 드라마 제작진은 격주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대본 리딩, 제작발표회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한다. 한 방송 관계자는 "출연자와 스태프의 프로그램 이동이 잦아 확진 여파가 겹잡을 수 없다"면서 "하루만 현장을 멈춰도 손실이 커 방역에 더욱 철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BS 2TV 개그프로그램 '개승자', MBC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후클럽' 등은 방역

지침에 맞춰 조심스런 방청객 모집에 나섰다. KBS 2TV '뮤직뱅크', 엠넷 '엠카운트다운' 등 음악프로그램도 관련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극장 '정상화'로 관객 늘어날 것'

영화계는 개봉작이 크게 줄어들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상황'에 제작 자체가 쉽지 않았다. 제작이 끝난 기대작들도 개봉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올해 말까지는 할리우드 대작 위주로 배급 전략을 짜고, 내년 설 연휴를 전후한 한국영화 기대작의 활성화를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극장가 기대치는 더 높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11월3일 '이터널스'를 시작으로 할리우드 기대작이 이어지면서 관객도 극장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11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월 관객 1000만명을 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기대도 나온다.
엔터테인먼트

'지리산' 첫 방송 9.1%, 돌풍의 시작?

tvN 역대 첫 방송 시청률 2위 레인저의 긴박한 일상 박진감 김은희 작가의 스릴러 호평도 CG 허술·어색한 전지현 지적도

톱스타 전지현과 주지훈이 주연하는 tvN 토일드라마 '지리산'이 높은 기대감 속에서 안방극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23일 첫 방송으로 9.1%(닐스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지리산 국립공원 레인저(관린)들의 일상을 긴박감 넘치게 담아 호평

을 받았다. 하지만 배경에 쓰인 컴퓨터그래픽(CG)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등 지적도 적지 않아 향후 추이에 눈길이 쏠린다.

'지리산'은 신입 레인저 주지훈이 선배 전지현, 조한철, 오정세 등과 함께 중학생 조난자를 수색하러 나서는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2'(10%)에 이어 tvN 역대 드라마 첫 방송 시청률 2위에 올랐다. 특히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레인저들의 수색 작업을 자세하게 그려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조난자의 환영을 보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주지훈, 그를 만



전지현이 주연하는 tvN 토일드라마 '지리산'의 한 장면.

난 지 2년 만에 휠체어를 타게 된 전지현 등 초반부터 휘몰아치는 전개로 관심을 모았다. 많은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별써부터 캐릭터들에 대한 각종 추측을 나누면서 "tvN '시그널'을 쓴 김은희 작가의 개성이 담긴 스릴러"라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온다. 지리산을 표현한 CG 장면을 두고 "허술해서 물음이 깨진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로맨티 코미디 장르에서 빛을 발하다 스릴러 이야기를 이끌게 된 전지현의 연기가 "다소 어색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24일 '지리산'의 책임프로듀서인 소재원 OP는 "작가, 감독, 연기자들의 힘이자 드라마 특성상 더욱 고생을 많이 한 현장 스태프 덕분에 순조롭게 출발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재미있어질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